

# 어느 90세 건축사의 독도기행 감상문

Travel Essay of a 90 Years Old Architect



김승환 | Kim, Seung-hwan, KIRA  
(주)문화종합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우리의 땅 독도를 90평생에 한번 가볼 마음으로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아침 7시 30분에 강릉으로 출발하는 첫 차에 올랐다.

강릉에는 10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는데, 울릉도로 출발하는 배는 이미 9시 30분에 출발했다는 것이다. 강릉에서 울릉도로의 출항은 매일 한 번씩이라고 한다. 애타한 마음에 해운터미널 직원에게 “독도를 가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혼자 가시려고요?”하며 되묻는다. “응, 혼자!”라고 대답하자 직원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니 늦지 않도록 오시라고 하고는 친절하게도 울릉도에서의 식사, 관광, 숙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줬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는 강릉에서 쉬면서 좀 전에 말했던 직원의 말을 상기하면서 준비를 꼼꼼하게 했다.

9월 11일, 아침 배편에 늦지 않도록 준비해서 배에 올라 독도로 출발했다. 과거 같으면 8시간 이상 걸렸을 배가 이제는 2시간 남짓하니 울릉항에 도착했다. 이어 독도까지는 1시간 반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독도에 도착하니 젊은 경찰들이 우리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상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선상에서는 독도에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TV로 독도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보았지만, 독도에 대한 노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물론, 울릉도 동남쪽...이라는 노래는 있지만 부르는 사람도, 나오는 노래도 없었다.)

“왜? 그럴까?” 과거 아주 오랜 옛날부터 동요와 시 그리고 노랫가락은 무한의 소유를 나타내는 증표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의 독도를 사랑하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독도사랑애창 등과 같은 노래가 한 없이 흘러나오고 국민 모두가 부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래는 남, 북한이 모두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과거 2002년에 월드컵 응원을 할 때에 함께 박수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와 같은 한 마음, 한 국가라는 일체감이 있는 노래와 외침이 선상에서부터 주변 모두에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상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못해 개탄스럽다. 위안부할머니를 대하는 일본의 행동을 보았는가? 현재 이 젊은이들의 어머니 누나가, 언니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초를 겪었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과거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고 식민지를 경험했다. 그러나 과거의 행태에 명쾌하게 잘잘못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하는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반면에 일본은 언어뿐 아니라 민족 문화 자체를 말살하였으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남의 땅에 대해서 국제재판소에 제기하겠다는 등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 90살이 넘는 노인은 머지않아 세상에서 잊히겠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아야 한다. E.H.K의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말했듯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강릉시 씨스포빌 여객선 터미널 박 계장님의 친절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

필자는 1923년 평양에서 출생.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52년도에 졸업했다. 건국대 산업대학원을 이수했고, 군속 설계관 (주)경남기업, 수원농촌진흥청 근무를 거쳐 65년에 (주)문화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제관과 천주교방성교회, 안양 포일 및 군포성당, 의정부 경민대학 등이 있다.